

이 시대의 인문학

영어영문학과 2014학번 강민아

<목 차>

1. 들어가며 - 인문학의 중요성
2. 본론 - 인문학이 갖춰야 할 것
 - 2-1. 인문학의 정의
 - 2-2. 인문학의 기본적인 소양
 - 2-3. 우리가 갖춰야 할 관심, 공감, 관용
3. 마치며 - 나의 생각

1. 들어가며 - 인문학의 중요성

인문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이다. 최근 뉴스를 보면 사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공계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인문계 졸업생들의 취업률의 2배이며, 기업에서 인문대학생들을 뽑는 비율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문계 전공자들의 비중은 적다.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다 보니 고등학교에서도 문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에 따르면 이공계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순간부터 인문계의 중요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이공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이공계든 인문계든 이러한 학문들을 배우는 이유는 모두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편리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편해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오히려 인간 소외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대해 더욱 깊이 알고 배워야 한다. 사람에게 대해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문학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것이다.

나는 처음에 이런 뉴스의 소식을 접할 때에는 인문계의 비중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인문학생으로 인문대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도 그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잘하면 되지 상관없지.' 라고만

단순히 생각하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 : 시대와 정신>수업을 들은 후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사회가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나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혼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나의 마음가짐부터 바꾼 후 어떻게 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인문대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 시대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소논문을 쓰게 되었다.

2. 본론 - 인문학이 갖춰야 할 것.

2-1. 인문학의 정의.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시대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이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배우기 위함이다. 더 자세히 인문학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 대해 규범적으로 반성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문학을 정의한다면, 인문학 교육은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성장하는 세대가 인간다움의 이념을 충실히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바로 인문학 교육이다. 나아가 인문학 교육은 피교육자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향과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개인적 삶이 가능한 사회적 관계를 정립 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결국 인문학 교육은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이 지녀야 할 교양적 기본 소양의 기르게 함으로 주체적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인 셈이다"¹⁾라고 할 수 있다.

2-2. 인문학의 기본적인 소양.

인문학의 정의를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인문학자들부터라도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할 줄 알아야 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우선 수업시간에 첫 번째로 배운 『총, 균, 쇠』는 사람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던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서 쓴 책이다. 그는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관습 등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불평등이 일어났다고 본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 불평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나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 갈 것이다.

하지만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불평등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애정과

1) 최현철,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대한 수고」, 『시민인문학』, 제23권,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장.

관심이 있었다. 그는 이런 불평등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을 안타까워하였기 때문에 왜 이런 불평등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였던 것이다. 그는 "뉴기니인들과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그들이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보다 지능도 높고, 빈틈없고, 표현력도 풍부하고,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느꼈다. (중략) 이를테면 낯선 곳에 가서도 그곳의 전체 모습을 금방 파악하는 능력 등에서 그들은 서구인들보다 상당히 능숙해 보인다"2)라고 말하며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불평등이 생겼다고 판단하지 않고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졌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처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부터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너무나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나 또한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했다. 살면서 왜 이런 불평등이 생겼는지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으며, 단순히 생각해보더라도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않았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은 후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앞서 말했듯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속담처럼 늘 무관심이 악플보다 무섭다고 말을 한다. 이처럼 무관심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처럼 내가 다니고 있는 인문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인문학의 비중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문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조차 인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예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사 : 시대와 정신> 수업을 들으면서 인문학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좀 더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왜 사회가 이공계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할 인문학적 소양은 다른 사람들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유토피아』라는 책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저술한 토머스 모어는 그가 살던 당시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었기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토마스 모어는 그가 느끼고 있던 삶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정신을 『유토피아』라는 책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는 책속에서 많은 현실 비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귀족들은 수벌처럼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소작농들의 노동을 통해 먹고 살아가는데, 늘 소작료를 올려서 농민들의 고혈을 짜냅니다3)

그런데 이제는 양들이 너무나도 욕심 많고 난폭해져서 사람들까지 잡아먹는다고 들었습니다4)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토마스 모어는 인간보다 돈이 중요시되는, 가치가 타락한 현실을

2)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2009, 27쪽.

3)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주경철 역, 을유문화사, 2010, 24쪽.

4) 위의 책, 27쪽.

비판하고 있다.

토마스 모어가 왜 유토피아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도둑들을 처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였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도 사회가 그들을 도둑으로 만든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공감'이 필요한 것이다. 토마스 모어는 '처벌을 하자, 하지말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공감하고 그 원인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토피아의 세계에 대해 전쟁, 노예, 학문의 즐거움, 여행, 결혼 등 사소한 요소들의 제도에 대해서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유토피아에서 시행되는 제도들은 우리 사회에 있는 제도들이 시행되어지는 방식만 다를 뿐, 그 요소들은 유토피아와 우리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 이것을 통해 토마스 모어는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한 가지의 제도만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도들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토마스 모어처럼 공감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양비론적인 입장이 아닌,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 중요성을 갖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것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인문학이 처해있는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인문학이 이공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인문학이 이공계보다 중요성이 작아졌고, 왜 사람들이 이공계를 많이 선호하는 사회가 되었는지가 초점이 된다. 우리는 왜 사회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의 나라처럼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근심, 걱정 없이 인간이 우선시 되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을 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간이 인간자체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돈이 우선시 되며 성공만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런 사회에서는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그저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유토피아』의 책에서는 “자연의 두 번째 법칙은 가능한 한 변민으로부터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이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그 목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사실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덜어주고, 고통을 경감해 주며, 그들의 삶에서 슬픔을 없애고 쾌락으로 인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쾌락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것은 없습니다”⁵⁾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문학의 역할이고 이런 인문학의 역할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5) 토마스 모어, 앞의 책, 97쪽.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은 관용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타인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들에 공감할 줄 안다고 해도 관용을 베풀 줄 모른다면 모두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우선 관용이란 "소극적 인정과 방임을 넘어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승인하는 태도를 말한다"⁶⁾. 『관용론』이라는 책에서 볼테르는 종교의 불관용에 대해 비판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용론』은 장 칼라스의 사건을 계기로 쓰여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종교의 불관용으로 인해 한 가정의 처참히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볼테르는 이를 통해 불관용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용론』이라는 책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왜 갈등과 차별이 생기는데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다. 갈등과 차별은 사람들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순 없다. 그들의 생각은 각각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다름이 아니라 차별로 변질 된다.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와 그들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이것이 다수와 소수의 관계일 때는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오로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틀리다고만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다양화되어 지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는 반대와 대립을 허용함으로써 발전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중략) 어떻게 서로 다른 것들이 대립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평화로운 공존이어야 하고, 그 핵심에 관용의 정신이 있다”⁷⁾.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며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⁸⁾하기 위해 관용을 필요로 하며 관용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녀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법에서 그렇듯이 인간의 법에서도 보편적인 원칙은 세상 어디서나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내가 타인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너 역시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그러한 원칙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것을 믿어라,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어떻게 말 할 수 있겠는가⁹⁾

『관용론』에 나오는 위의 구절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내 생각이나 원칙을 강요할 수 없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존중해주며, 그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또는 그들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 비난하거나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6) 볼테르, 『관용론』, 송기형, 임미경 역, 한길사, 2002, 21쪽.

7) 이상진, 「관용 교육의 도덕 교육적 의의」, 『윤리철학교육』, 제13권, 윤리철학교육학회, 2010, 2장 2절.

8) 위의 논문, 2장 2절.

9) 볼테르, 앞의 책, 75쪽.

2-3. 우리가 갖춰야 할 관심, 공감, 관용.

현대 사회에서 공학이 중요해진 이유도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이다. 기술 발달을 통해 우리들은 점차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공학도 우리 사회에서 꼭 배워야 하는 학문이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는 인문학보다 공학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인문학과 공학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공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공학을 선택하고 인문학을 멀리하게 될수록 인문학의 중요성은 더욱더 사라져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공학만을 중요시하게 되며 인문학에 대한 공부와 관심은 소홀해진다. 점점 인문학의 비중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며, 결국 우리 사회는 인간을 위한 사회가 아닌 기계와 기술이 우선시 되는, 인간의 가치보다 기계나 기술의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학과 더불어 인문학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공학이 중요한지, 인문학이 중요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며 모두 중요한 학문들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발전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우리가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두 인간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간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인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인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저 단순히 언어나 문학, 철학 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해 알고 인식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인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자들부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학생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을 때 비로소 인문학의 중요성도 커지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배운 『총, 군, 쇠』, 『유토피아』, 『관용론』에서 언급했던 관심, 공감, 관용은 꼭 가져야 할 소양들이다.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아무런 변화도 가져 올 수 없다. 재레드 다이아몬드교수, 토마스 모어, 볼테르 이 세 사람 모두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책들을 집필 할 수 있었고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타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 이 또한 자신만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 공감, 관용을 모두 갖추고 더 나아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며 배려할 줄 안다면 갈등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이 발전하여 사회가 보다 인간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현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만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갈 때에 비로소 그 행복의 가치는 더해질 수 있다.

인문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

즉 사회의 관심도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가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며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변화는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을 때 그 대상에 관심을 갖고 신중히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 공감하며 관용을 베풀줄 알아야 한다. 갈등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마치며 - 나의 생각

나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두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지금 사회는 성공만을 추구하고 돈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나는 나의 꿈을 이루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해 공부하고 대학을 다니는 이유도 있지만,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면서 살았을 때 과연 행복할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런 삶이 행복의 전부일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이번 <사 : 시대와 정신>의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관심, 공감, 관용 등의 인문학적 소양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관심, 공감, 관용은 거창한 일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나부터 이런 소양들을 갖춰야 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 수업을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책만 읽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도 되돌아보게 되었다. 사 수업을 꼭 들어야해서, 학교에서 들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듣는 수업이 아닌 나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 되어서 너무나 뜻 깊은 수업이었다. 이런 마음가짐을 이 수업을 들을 때에만 잠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

<참고 문헌>

1. 작품 분석

볼테르, 『관용론』, 송기형, 임미경 역, 한길사, 2002.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2009.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주경철 역, 을유문화사, 2010.

2. 논문 및 단행본

이상진, 「관용 교육의 도덕 교육적 의의」, 『윤리철학교육』, 제13권, 윤리철학교육학회, 2010.

최현철,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대한 수고」, 『시민인문학』, 제23권,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